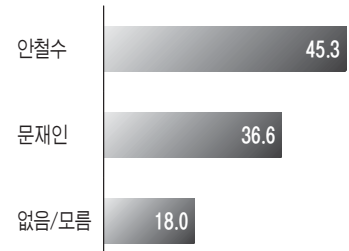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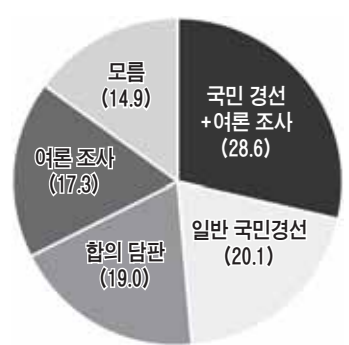
추석 대선 여론조사

야권 단일 후보 지지 20~40대 安, 50~60대 文

야권 단일후보 지지도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



광주 지지율 44.8%대 44.8%... 호남에선 치열한 접전 국민 29% “국민경선+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이뤄져야”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 ‘야권의 차기 대통령 단일화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45.3%의 지지율을 얻어 36.6%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8.7%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무응답층은 18.0%였다.

또 야권 단일화 방식으로는 일반국민경선과 여론조사를 혼용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화 방식=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는 안 후보, 50대 이상에서는 문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20대에서는 63.4%대 28.9%, 30대에서는 55.9%대 33.2%, 40대에서는 48.

9%대 35.7%로 문 후보를 압도했으나 50대에서는 31.7%대 44.2%, 60대 이상에서는 27.9%대 40.9%로 문 후보에 뒤졌다.

안 후보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은 무응답층이 각각 24.2%, 31.2%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두 후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역별로 광주(문 후보 44.8%대 안 후보 44.8%)와 전남(44.7%대 안 후보 41.3%), 전북(42.0%대 44.7%) 등 호남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주당 소속인 문 후보가 전국적으로는 안 후보에 밀리고 있음에

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성향이 높은 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서울(39.3%대 41.4%)·충북(44.3%대 40.2%)·경북(37.1%대 40.6%)·경남(38.9%대 38.9%)·제주(45.7%대 43.5%) 등 지역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 후보는 두 후보의 고향인 부산(33.8%대 50.0%)과 같은 영남의 대도시인 대구(28.3%대 52.5%)에서 뿐 아니라 경기(32.4%대 51.7%)·강원(27.5%대 50.0%)·충남(27.4%대 42.9%) 등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문 후보는 울산(49.4%대 29.2%)에서만 문 후보를 압도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문 후보 36.8%대 안 후보 37.1%, 중도층에서 문 후보 41.0%대 안 후보 42.9%의 지지율을 무열을 구분하기 힘든 접전이 펼쳐졌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문 후보가 30.9%에 그친 반면 안 후보가 59.4%라는 두배 가까운 지지율을 앞섰다. 이는 문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 더 진보적인 경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외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정권교체 열망이 가장 높은 진보층이 안 후보에 대한 분선 경쟁력을 더 후하게 쳐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는 화이트칼라(52.3%), 전문·자유직(61.7%), 대학·대학원생(62.4%) 등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문 후보는 농·축수산업에서만 36.7%의 지지율로 25.6%에 그친 안 후보를 앞섰다.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야권 후보의 단일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국민경선과 여론조사 혼용’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국민경선’ 20.1%, ‘합의의 담판’ 19.0%, ‘여론조사’ 17.3% 순으로 비슷한 비율을 기록했다.

‘일반국민경선+여론조사’ 응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38.7%, 30대는 32.4%, 40대는 31.8%, 50대는 23.8%, 60대 이상은 17.0%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는 야권 단일화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도 양상과 비슷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1.4%)·부산(33.8%)·대구(31.8%)·경기(32.8%)·경북(32.5%) 등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경선+여론조사’를 선호했고, 울산(39.3%)·강원(33.3%)·전북(36.0%) 등에서는 ‘일반국민경선’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선 ‘합의의 담판’이 38.8%로 가장 선호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대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대선 여론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일~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 수는 4006명이고, 최근 이뤄진 국내 언론사의 대선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할당을 통한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조사는 1대1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1.5%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를 위해 2만 3822명과 통화를 했으며, 응답률은 16.8%였다.

한편, 조사를 의뢰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경인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대전일보·경남신문·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일간지로 구성했다.

최권일기자 cki@

‘4전5기’ 박주선 “사필귀정”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이 다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4전5기’인 셈이다.

박 의원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지지자 200여명이 몰려들어 입주의 여지가 없이 들어갔고, 이들은 박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일부는 박 의원을 연호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동구 불법선거에 박 의원이 공모한 정황이었고 그 수혜를 봤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종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의

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공모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모순도 많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곧바로 광주교도소로 되돌아가 옷을 갈아입은 뒤 석방됐다. 그는 “본인 사건이 동장 투신과 관련된 경선 부정이었는데 무죄를 받아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하고 화순사건은 별개 사건으로 상고하겠다”며 “역시 한번 사법제도에 의해 구속이 돼버리면 정의를 찾는 길이 길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는데 시련 속에서 얻은 생각과 지혜로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이정도 또는 초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 방침이어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1·2심 재판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박주선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따라 광주교도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나원주기자 mjna@kwangju.co.kr

곽노현 실형 확정... 교육감직 상실

12월19일 대선때 재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 무효청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연부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일본행으로 부탁한다

넉글래 글러온 더블행은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100%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

- 전국 최초 특전부사관과 개설 및 육군과 전국 최초 학군체육
- 2012년 졸업생 100% 취업 - 부사관 80% 임관
- 2012년 특전부사관 군장학생선발시험에 전국 최다합격
- 특전부사관 및 육해공군 부사관에 동시 지원 가능 - 임관 100% 보장
- 교수 3명 전원 특전사 대령 출신으로 맞춤형 교육

박 한수 교수
(예, 육군대령)

전제비공수 특전여단 부여단장
국방대학교 교수

윤 재정 교수
(예, 육군대령)

전제비공수 특전여단 참모장
제 8군단 감찰 참모

이 성준 교수
(예, 육군대령)

전제비공수 특전여단 참모장
국방부, 육군본부 정책실
강원도청 국방협력관

구분	전형일정
수시 1차	2012. 08. 16. - 10. 09.
수시 2차	2012. 10. 29. - 11. 30.
정시 1차	2012. 12. 21. - 01. 10.
정시 2차	2013. 01. 21. - 02. 01.
정시 3차	2013. 02. 18. - 02. 25.

연락처 062-230-8920(학과실) 010-5339-9666(이성준교수)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좋은술의 고집 국순당

도매점 사업자 모집

좋은술의 고집 (주)국순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도매점**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주류 유통과 판매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주류 유통판매 도매점
모집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부 (구례, 곡성, 고흥, 보성)
취급품목 백세주, 생막걸리, 아이싱, 예담차레주 명작오미자/상황버섯/오가자/복분자 등 국순당 전 제품
선발방법 자격요건 확인, 서류심사 면접
취급품목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고객관리 마인드를 갖춘신분 ●해당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이주 가능하신 분 ●초기 소요자금 조달 가능하신 분 ●기타 특정주류면허 취득 및 사업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함께 일할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술의 고집 **국순당**
광주 호남팀 전 화 062-951-0637
휴대폰 010-5470-9550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대부업체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에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1. 최대 10%의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
2. 10%의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
3. 10%의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
4. 10%의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

※ 저희 한국공인중개사는 광주전역 및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외 전남 전지역에 방대한 물건중 그중 투자수익율이 보장된 확실한 검증된 물건을 추천 중개 및 경매 참여하여 드리는 광주전 부동산 권리분석 전문 대표 부동산입니다.
※ 광주, 전남 전지역 부동산 매물 접수합니다.

대지, 전, 담,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산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 담양, 나주, 장성, 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 광주 서구 능성동 641-5 네이비 카페이 harkookland@naver.com